

하림 삼계탕, 전세계 입맛 사로잡아

올해 상반기 수출 171만 달러로 지난해 147만 달러 보다 16% 증가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의 삼계탕 제품이 맛과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냉동 제품인 '즉석 삼계탕'과 레토르트 제품인 '고향 삼계탕'에 이어 '가슴살 삼계탕' 제품까지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주)하림은 최신 설비를 갖춘 익산 신공장이 1월부터 삼계탕 미국 수출 작업장으로 지정된 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미국 수출작업장으로 통과된 익산 스마트 공장은 닭고기의 신선도를 위한 전 공정 가스 살신 시스템을 비롯해 해 풀 에어 칠링, 터널 후리저 설비, 8C 클린 작업장 시스템 등을 갖춰 닭고기의 맛과 안전성을 높였다.

올해 말까지 '가슴살 삼계탕' 제품에 대해 추가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삼계탕 제품은 냉동 제품인 '즉석삼계탕'과 레토르트 제품인 '고향 삼계탕' 등 2개 제품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제품 추가에 따른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가슴살 삼계탕' 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 FSS(미국 식품안전검사국)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오는 11월 중순에 첫 선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삼계탕 수출 실적을 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삼계탕 미국 수출 물량이 270톤으로 지난해 6월 기준 234톤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올해 1월 익산 신공장에 대한 미국 수출 사업장 재심사로 삼계탕

제품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계탕 미국 수출금액도 현재(6월말 기준)까지 171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147만 달러에 비해 16%가 증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400만 달러를 목표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내 축산물 최초로 미국 시장에 첫 삼계탕을 수출한 (주)하림은 매년 판매량이 증가해 현재 수출량이 143만톤에서 지난 2018년에는 32배 정도 늘어난 463톤을 기록했다.

(주)하림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한 익산 신공장을 통해 생산되는 삼계탕 제품의 맛과 품질, 안전성을 높여 미국시장은 물론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전 세계 시장에 삼계탕 수출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삼계탕의 우수성을 알리며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는 등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주)하림 박길연 대표이사는 "하림 익산 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삼계탕 주재료인 닭고기의 신선도를 높였으며 맛과 품질도 함께 높였다"며 "미국 시장 수출량 확대를 비롯해 유럽시장까지 우리 회사 삼계탕이 수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민원 기자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농가에 도움의 손길

전주김제완주축협, 사랑의 농촌일손돕기로 농협이념 실천에 앞장서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전 직원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농심(農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6월을 보냈다.

한 달간에 걸쳐 진행된 '농협 이념 교육, 사랑의 농촌 일손돕기'로 전주김제완주축협 임직원들은 그동안 근무하면서 간과했던 농협이념으로서 이념을 가슴에 새기고, 현장에 나가 몸소 실천해보도록 부족한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농가에 도움의 손길과 농민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4주간에 걸쳐 진행된 이념교육은 농협 핵심이념 구현과 실천 전략, 변화와 혁신, 삶의 의미 찾기와 가슴으로 살기, 봉사와 함께하는 삶 등의 주제로 직원들의 가슴에 삶의 가치와 농협이념으로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참된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

행된 '사랑의 농촌일손돕기'는 사무소별 총 9회에 걸쳐 고령조합원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를 찾아 밀과 양파 수확, 모내기 등 농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김창수 조합장은 "농협 이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뜻깊은 6월을 보낸 것 같다"며, "한달간 진행된 농협 이념교육과 농촌 일손돕기가 직원들의 업무능력 강화로 이어져 농가소득증대와 조합원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받는 조합으로 발돋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2017년부터 조합원 전담제를 운영하여 조합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조합'을 구현하고자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오늘 신상품 '1st Triple 신용카드'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7월 1일, 선택형 서비스 타입을 제공하는 신상품 '1st Triple 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출시된 1st Triple 신용카드는 세 가지 서비스 타입 중 고객이 원하는 한 가지 타입을 선택하고 선택한 타입 업종에서 이용하면 전월실적이나 한도제한없이 이용액의 1%를 J머니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더불어, 전월실적 10만원을 충족하면 △후불교통 5% 적립 △주요 카페/베이커리 5% 적립 △전국 영화관 3,000원 적립도 가능하다.

또한, 신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7월

부터 9월까지 1st Triple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명품 3종(캘러웨이 골프 아이언 세트, 샤넬 캐비어 반지갑, 코지마 클라세 안마의자) 응모 이벤트 및 5,000원 모바일쿠폰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1st Triple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JB카드 회원들의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고객 입장에서 적립에 최적화된 타입들로 구성했기에, 실속있는 적립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군인연금 압류방지 전용 상품 판매 시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인연금 압류방지 전용 상품을 오늘부터 판매한다.

상품은 국방부로부터 임의되는 군인연금에 한해, 이용 가능한 통장으로 압류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이에, 매달 임의되는 군인연금을 보호할 수 있어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국방부로부터 군인연금을 수급하는 개인이며 가입금액의 제한은 없다.

최저 연 0.05%(통장잔액 5천만원 이하)~최고 연 0.10%(통장잔액 5천만원 초과)의 이율을 제공하고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및 당행 CD/ATM 영업시간의 현금인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JB군인연금 평생안심 통장은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호될 수 있는 상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안전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가 최근 관내에서 생산된 양파 5000kg를 구매해 남원시 노인복지관 등 10개소에 전달하며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양파'

농협 남원시지부, 양파 소비촉진 위한 나눔 행사 가져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박노현)는 최근 양파의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관내에서 생산된 양파 5000kg를 구매해 남원시 노인복지관 등 10개소에 전달하며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올해 양파가격은 지난해보다 17만톤 이상 과잉 생산되어 지난해 평균가격의 절반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농협에서는 양파의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인한 농가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양파 소비확대를 위한 '범농협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ES한국농업방송, MBC, 채널A 등 TV 프로그램을 활용해 양파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박노현 지부장은 "양파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에 주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은행, 인지도소프트와 협업 개발한 RPA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오늘부터 본부 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인지도소프트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운영한다.

RPA는 사람이 수행하는 PC기반의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자동으로 대신 수행하는 기술로, 지난해 고객 서류 간소화를 위한 PPR(Paperless Re-engineering) 도입에 이어 직원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이다.

도입되는 RPA를 통해 Human

Error(사람 실수)를 차단하고 업무 자동화로 비생산적 업무의 발생 빈도를 줄여 고객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효율성 개선으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본부로 집중해 처리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무더위 피해 '농협은행'으로 오세요"

오늘부터 무더위쉼터 운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매년 폭염으로 무더위에 지친 도민과 고객을 위해 오늘부터 두 달간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전북본부에서 여름철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관내 35개 전 영업점에 마련한 휴식 공간으로 시원한 생수와 부채 등의 고객 편의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특히, 농협은행은 전라북도내 모든 시·군에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어 도

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쉴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근 본부장은 "무더위에 지친 전북도민과 고객들이 농협은행 영업점에 찾아와 지친 심신을 충전하시길 바란다"며, "사시사철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봄철에는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미세먼지 쉼터'를, 겨울에는 핫팩을 나누어 주는 등 도민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